

# 국과수 “벌컨포 탄피 2점 5·18 이전 제작”

### 헬기·전투기 탑재용... 헬기 사격 간접 증거 될 수 있어

### 남평 발전 3점은 이후 생산... 재단 “시기 조작 가능성”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980년 5·18 직후 광주시 남구 논에서 발견된 20mm 벌컨포 탄피 2점'에 대해 생산연도는 1977년이며, 시기적으로 5·18민중항쟁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국과수는 감정서를 통해 “감정의뢰한 벌컨포 탄피는 헬기 등에 장착된 무기로, 뇌관 분석결과 정상 격발된(발사된) 탄피”라는 입장도 밝혔다.

5·18기념재단은 5일 이력 내용의 국과수 법안감정서를 발표하면서 “전일빌딩 10층 헬기 총탄흔적 국과수 감정결과와 5·18 직후 발견된 벌컨포 탄피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전투원의 회고록 주장은 맞다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전투한 전 대통령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서 “이러한 주장은 헬리콥터의 기체 성능이나 특성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 계엄군 진압활동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악의적 주장”이라고 강변했다.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피터슨 목사를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누군가의 사주를 받고 거짓말(헬기사격 증언)을 하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목사가 아니라 가면을 쓴 사탄”, 조비오 신부를 겨냥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악담을 쏟아냈다.

5·18재단은 특히 “벌컨포 탄피는 헬기·전투기에 탑재되거나 차량 견인식 중화기의 탄으로 사용되는데, 5·18 당시 전투기

나 차량 견인식 벌컨포가 목격된 적이 없고 ‘코브라’ 기종 공격헬기 투입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헬기 기총소사’의 간접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는 그러나 광주~남평 간 도로 중 한두대에서 발견된 벌컨포 탄피 3점은 1980년 6월에 생산, 9월에 보급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서에 적었다. 로트번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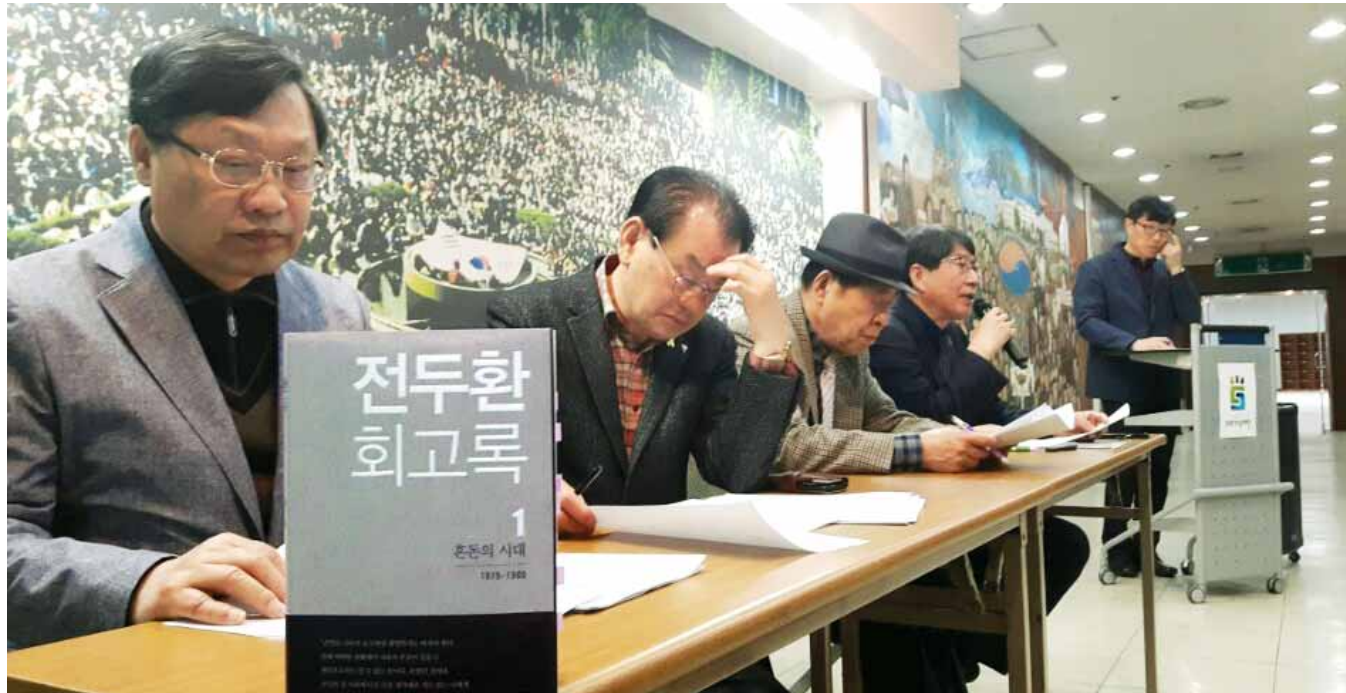
탄피 자체를 분석하고 제작사인 (주)풍산에 확인한 결과, 1980년 5·18 이후 생산됐다는 결론에 다다랐다는 게 국과수 판단이다.

5·18재단은 그러나 국과수 감정결과를 신뢰한다면, 벌컨포 생산 업체의 문서자료가 왜곡됐을 가능성(생산시기 조작 등)을 거론했다. 1980년 5월 24일 마을 사람들이 헬기 사격 소식을 듣고 한두재로 갔다가 총탄에 맞은 검은색 브리사 차량 앞에서 벌컨포 탄피를 주워 30여년간 보관하다 5·18재단에 넘긴 시민 김모(62) 씨가 거짓 증언을 할 이유가 없는데, 당

시는 물론 지금도 벌컨포 탄피 자체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도, 신군부 등 특정세력이 압력을 가해, 벌컨포 생산 업체의 문서자료가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5·18재단은 관련 추가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과수는 벌컨포 탄피와 함께 5·18재단이 광주시를 통해 감식 의뢰한 탄피 41점에 대해서도 생산시기 등 5·18 관련성 여부를 감정서에 담았지만, 5·18재단 측은 주목할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글·사진=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5일 광주시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전두환 회고록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5·18양언을 쏟아낸 전두환을 반드시 법정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 고 김수환 추기경 “5·18 당시 실권자는 전두환”

### 5·18재단 전두환 회고록 반박 회견... 생전 동영상 등 공개

고(故) 김수환<사진> 추기경이 “5·18 당시 실권자는 전두환이었으며, 1980년 5월 20일 궁정동 안가에서 면담하는 동안에도 전두환은 군부를 통해 수시로 광주 관련 보고를 받고 있었다”고 밝히는 생전 동영상 공개했다.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당시 “소선배님 공수부대 사기를 죽이지 마십시오”, “희생이 따르더라도 광주사태를 조기에 수습해 주십시오”라는 친필메모를 작성,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을 통해 소준열 전부령과교육사령관(전교사·광주전남북관할)에게 내려보냈다는 신군부 핵심인물들의 증언도 다시 확인됐다.

5·18기념재단은 5일 ‘전두환 회고록 반박 기자회견’을 열고 김수환 추기경 동영상, 소준열 전교사령관 등의 검찰 진술서

내용을 공개했다.

김수환 추기경은 지난 2002년 서울카톨릭대학 주교관에서 촬영된 동영상에서 “광주에서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듣고 5월 20일 전두환을 찾아갔다. 대통령이 당시 최규하씨였고 전두환씨는 보안사령관이었지만 그때 실권자는 전두환 씨란 말이야”라고 말했다.

이어 김 추기경은 “(면담) 장소는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 총살당한 그 자리 궁정동 바로 그 집이었다. 찾아간 목적은 유혈사태를 지속하지 말라는 부탁을 하려고”라면서 “몇 마디를 나누면 전화가 오고, 국방부로부터 전화가 와요. 광주에서 상황이 악화돼간다는... 전두환씨가 뭐라하면 ‘지금 내란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어요. 자기가(전두환) 곧 국방부로 가야하겠다고 일어나 갔어요”라면서 “공정적인 답변은



듣지 못하고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떠올렸다. 5·18재단은 정호용 당시 국방장관, 소준열 전교사령관, 김기석 전교사 부사령관, 임현표 전교사 교육훈련부장 등이 1996년 검찰에서 진술한 ‘전두환 친필 메모’ 관련 내용도 공개했다. 소준열씨는 검찰에서 “정호용 사령관이 호주머니에서 전두환 사령관 친필메모를 꺼내 제게 줬다. 맨 위에 ‘소선배 귀하’라고 써졌고, 그 아래는 ‘공수부대 기를 죽이지 마라’, ‘희생이 따르더라도 광주사태를 조기에 수습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면서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싸인을 처음 봤는데 특이해 기억에 남았다”고 진술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쫓 망언 37년만의 쿠데타”

### 5·18단체 비판 한목소리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5일 “37년 만에 다시 쿠데타를 당한 느낌이다”고 분노했다.

김 회장은 이날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가 주관한 ‘전두환 회고록 반박 기자회견’ 자리에서 “전두환 회고록 망언을 보니 37년 만에 전두환에게 또다시 쿠데타를 당한 느낌”이라며 “전두환의 이런 주장이 과연 정상적인 상태에서 나온 주장이냐”며 치를 떨었다.

양희승 518구속부상자 회장이 “1980년 20일 밤 광주역에서 계엄군 첫 발표에 의한 시민 사망, 21일 도청 앞 집단발포, 주남마을 미니버스 양민학살을 보라”면서 “잔인한 살상행위가 전두환이예전 자위권 행사란 말이나”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새정부가 들어서면 5·18 헬기사격, 5·18발포명령 책임자 규명 등 미완의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형호기자 khh@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13 | 해질 18:58 | 달돋이 14:10 | 달질 03:13

개끗해진 봄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오후부터 대부분 비가 그치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비온뒤 맑	13/19
순천	비온뒤 맑	11/16
여수	비가옴	13/17
나주	비온뒤 맑	11/18
완도	비가옴	13/18
구례	비온뒤 맑	12/18
강진	비온뒤 맑	12/17
해남	비온뒤 맑	11/17
장성	비온뒤 맑	11/19
보성	비온뒤 맑	12/17
영광	비온뒤 맑	10/16
진도	비온뒤 맑	12/15
군산	비온뒤 맑	9/14
홍산도	비온뒤 맑	9/14
흑산도	비온뒤 맑	8/15

지역	오전	오후
서해안	남~남서 0.5~1.5	북~북동 0.5~1.0
남해안	남~남서 1.0~2.5	북~북동 1.0~2.0
남부	남~남서 1.0~2.5	북~북동 1.0~2.0
남해안(동)	남~남서 2.0~4.0	남~남서 2.0~3.0
면해안(서)	남~남서 2.0~3.0	남~남서 2.0~3.0

지수	상태
경고	식중독
보통	자외선
보통	피부질환

날짜	날씨
7(금)	11/21
8(토)	13/20
9(일)	10/18
10(월)	8/19
11(화)	9/19
12(수)	9/19
13(목)	8/19

## 전교조 “희망교실 수요일예측도 안했나”

### 전교조 출신 장휘국 광주교육감 역점사업... 828개팀 탈락 비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광주 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인 ‘희망교실’ 사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전교조 출신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의 핵심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전교조가 지적했다는 점에 눈길이 쏠린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5일 ‘원칙 잃어버린 광주희망교실 사업! 광주교육청의 주먹구구식 행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의 희망교실 사업 선정 과정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전교조는 보도자료에서 “광주교육청이 올해 광주지역 초·중·고교에서 희망교실 사업을 신청한 7028개 팀 중 6200

개 팀만 선정하고 돼 828개 팀을 탈락시켰다”면서 “몇 년째 추진해온 중심 사업임에도 수요예측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희망교실 사업은 교사가 자발적으로 멘토로 나서 교육소의 학생, 학교생활 부처용 학생, 기타 도움이 필요한 학생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로, 올해 31억여 원을 투입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요 예측과 달리 신청자가 많았고 예년 프로그램을 모방해 제출하는 등 미흡한 프로그램도 발견됐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 출구 없는 총학선거 파행 사태

### 전남대 투표 과반 못넘겨 연장

### 조선대 총학 직무정지 공고

조선대 총학생회 직위가 정지되면서 총학생회 부재 상태에 놓였다. 전남대는 학생들의 외면으로 총학생회장 선거만 3일째 이어갈 전망이다.

조선대는 5일 취업학생처장 명의로 “총학생회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

위) 및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총학생회 직무를 정지한다”고 공고했다. 법원 판결과 학생자치기구의 임장을 감안한 조치로, 시급하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총학생회 부재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도 미지수다.

한편, 재선거에 돌입한 전남대는 투표율이 50%를 넘지 못하면서 애초 4일 로 예정됐던 총학생회장 선거를 6일까지 연장한 상태다. /김지을기자 dok2000@

부모와 자식간의 사랑에도 대한보청기가 필요합니다

TV · 전화 · 말소리가 잘 들립니다!!

# 대한보청기

## 1+1 무료!!

구입시 전 제품해당

무료!!

(보청기 구입 1+1 무료, 모두 적용)

맞춤렌탈 (표준 가입비 면제)      보조금 (최대 131만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무료방문 홈 서비스!!      \* 청각장애등급 해당자

50% 특별대할인

광주·전남 본점 0621430-8900

순천·여수 본점 0611741-4880

전북·전주 본점 0631251-4999

※이 제품은 의뢰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광주 민통본점: 062)16-4507호

◆강안본사 02)2248-5600 ◆종로본점 02)743-8100 ◆강남본점 02)542-8500 ◆송파·잠실본점 02)420-2090 ◆영등포본점 02)2637-2800 ◆관악본점 02)3285-7600 ◆인천(부평)본점 032)516-2200 ◆수원본점 031)248-7200 ◆안양본점 031)442-2400 ◆분당본점 031)707-5787

◆일산본점 031)917-1100 ◆의정부본점 031)840-2001 ◆구리본점 031)551-1310 ◆안산·시흥본점 031)407-2999 ◆천안·아산본점 041)522-1400 ◆청주본점 043)225-2900 ◆대전본점 042)486-9944 ◆대구본점 053)253-4400 ◆대구서부본점 053)657-3700 ◆대구북구(실곡)본점 053)311-7900

◆포항본점 054)231-8070 ◆강원(원주)본점 033)731-2114 ◆부산본점 051)819-0038 ◆부산북구(덕천)본점 051)335-7800 ◆울산본점 052)256-9050 ◆충원·마산본점 055)222-3050 ◆광주·전남본점 062)430-8900 ◆전북(전주)본점 063)251-4999 ◆순천·여수본점 061)741-4880